

# 주안에게

##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6  
Jun. 2015  
Vol.3 No.6

- 중고등부 수련회
- 사역국장 모임
- 선교 / 양육훈련
- 구역&사역국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 중고등부 수련회

## 찬양과 기도로 준비... 풍성한 은혜의 단비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의 미심장한 행사였다.

이전 행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일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기도와 후원과 노력으로 이전의 수련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였다.

2014 겨울 수련회를 조금 조금하고 열약하게 치루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중고등부 리더쉽 은 겨울 수련회를 끝내자마자 이미 2015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였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 찬 양의 밤을 진행하는 것을 필두로 벨리와 세리 토스로 나누어 있는 채플의 특수한 상황을 악

재가 아닌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호재로 변 화시켜나갔다. 이런 열심과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이 아이들로 하여금 회를 거듭할수록 하나로 뭉치며 연합하고 위태로운 사춘기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 기로 바뀌고 있었다.

수련회를 위한 warm up은 6월 13일 토요일 벨리, 세리토스 연합 Dockweller State Beach 야유회를 시작으로 6월 19일 마지막 금요일 찬 양의 밤은 수련회 전야제처럼 치뤄져 수련회를 향한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이런 오랜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어 여름학

기에 맞물려 망설이던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헌신 덕에 미비할 뻔 했던 참가인원은 예상인 원을 훌쩍 넘기게 되었고 한층만 사용하려 했 던 계획을 수정하여 한 건물을 다 사용하게 되 어 결속력을 배가 시킬 수 있었다. 21일 주일 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자신의 시간 전부를 헌 신한 리더들도 아름답지만 생활전선에서 아주 발을 뻗 수 없었던 학부모들이 일년에 한번 같 까 말까했던 Big Bear Lake을 하루가 멀다하 고 오르내리기를 마다치 않고 자녀들을 참가 시킨 이 열심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 받지 않으 셧을까... < 8면에 계속 >



## 후반기 사역 "주 안에서 활기차고 즐겁게"

지난 6월 3일 7시 30분 벨리채플 101호실에서 주안에교회 사역국장들과 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역국장회의가 열렸다.

김황희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회의는 사역국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교역자들이 식사를 섬겼으며, 2015년 전반기 주안에교회 벨리와 세리토스 채플의 사역을 돌아보고 하반기 사역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자리였다.

각 사역국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기를 사역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각 사역국별로 그리고 벨리와 세리토스 채플의 사역의 환경과 성과, 내용, 계획 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사역을 향한 열정과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각 사역국별로 구체적인 사역 내용의 발표와 함께 하반기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역국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이 사역국들의 공통적인 요청이었다. 금번 사역국장 회의는 각 사역국과 국장들의 후반기에 향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안에교회 사역의 구조는 크게 사역국과 교구로 나뉘어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두 조직이 상호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역함으로써 주안에교회의 사역이 힘이 있고 사역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국이 전반기를 점검하고 후반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역국장들은 사역도 돌아보지만 더욱 열심히 후반기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혁 담임목사는 전반기 사역을 진행하며 수고한 사역국장들에게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현장에서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후반기에 주안에교회 사역국들의 사역이 더 활발하고 즐겁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 허락하시고 맡기신 사역인 만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안에교회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사명감으로 후반기에 달릴 것이다. 이에 성도들도 사역국들의 사역을 격려하고 동참하여 더욱 발전하고 협력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김경일 기자 |

< 2면서 계속 > 그런데 마귀의 공격은 패턴이 있고 이 패턴을 잘 알면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조롱했다고 나오고 8절에는 요란하게 하자라고 되어있는데 원문을 보면 상처를 주자입니다. 마귀는 방해공작으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집과 사업, 교회에 낙심과 좌절을 주려고 비웃고 상처를 줍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설친다고 비난하고 이간질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나뉘지면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책동에 느헤미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14절에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자카르)는 마음에 새기다 는 뜻으로 과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강하게 마음에 새겨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출옥하고 나서는 요셉을 기억(자카르)하지 못 했지만 왕의 꿈을 듣고 요셉을 기억하

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이 되지 못했지만 뒤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과 현실은 다릅니다. 네팔의 지진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이 낙심한 것은 그들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아니라 사자와 곰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사실은 산발랏과 도비야가 방해자이지만 아닥사스다왕을 움직인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길이 열립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두려워 말고 사방이 막혔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그분이 현실이 되면 어떠한 상황도 역전됩니다. | 조성운 기자 |

7월 목회계획표

[ 목회부 & 교육부 ]

7/5(주일) 구역모임  
한어청년부 예배 시작

7/9(목) 전교인기도회(세리토스채플)  
세리토스 교육부 VBS

7/10(금) 전교인 기도회(벨리채플)

7/12(주일) 세리토스 교육부 VBS

7/16(목) 교구장모임(세리토스채플)  
7/17(금) 교구장모임(벨리채플)

[ 평신도 사역훈련원 ]

주안에샬 (7주) 6/13~7/21, 7:45pm  
주안에말씀 (18주) 7/22~11/20

■ 6교구(밸리채플)

## 믿음과 삶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6교구는 2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구장으로 2부 밸리 성가대장으로도 봉사하는 장기연 장로이며 1구역장에 윤상현 집사, 2구역장에 공태용 집사가 섬기고 있다. 6교구는 20가정 30명의 성도가 사랑과 화합으로 뭉쳐진 교구이다.

구역예배를 위해 6월 14일 오후 5시 장기연 장로대에 모인 교구원들이 함께 구역공과 내용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달 교구모임의 하이라이트는 구수천 집사의 80회 생신을 함께 축하하며 격려하고 감사하며 서로 칭찬하는 시간이었다. 박현동 목사의 인도로 구수천 집사의 80회 생일 감사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 되었고, 시편 23편 다윗의 시 말씀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려움이 붙잡았고 또 그 길을 간다할지라도 그 분이 함께 계실 것을 알기에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며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예배를 마친 후 구용순 권사와 구자형 집사가 손수 장만한 음식들로 커다란 식탁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 색깔의 맛있는 음식으로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다. 음악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은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다. 1구역 허지연 집사의 언니는 하루 전에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마침 교구모임이어서 함께 참석하고 구역원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가 끝날 무렵 7시 30분에 최혁 목사와 한대일 전도사의 격려 방문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최혁 목



사는 6교구를 화합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하고 수고하는 교구장, 구역장들과 교회에서 그리고 밸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굳은 일을 도맡아 열심히 봉사하는 구수천 집사를 격려했다.

김중태 장로는 "교구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만나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허물없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곳이며, 드러지는 구역예배가 매달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장혜덕 권사의 어머니 이정자 권사는 매일 새벽에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사랑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며 나이가 금년 85세인데도 "이 나이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며 감사와 기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8순의 구수천 집

사는 "감사한 것은, 조금 섬겼지만 몇 곱절 복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이 나이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생일 소감을 밝혔다.

장기연 장로는 "최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구원의 평균 나이가 50세가 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뭉쳐진 6교구를 볼 때 주안예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재목으로 훈련시키시는 교구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항상 화합하며 사랑하는 분이 되는 교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 공태용 기자 |

■ 봉사국(밸리채플)

## 힘든 섬김 속에서도 항상 잔잔한 웃음이...

매주 주일예배 후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는 봉사부원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곳이다.

매주 식사 사역을 담당하는 봉사국을 방문하여 식당에 들어서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든 주방의 비품이 언제든지 봉사를 기다리는 것처럼 잘 구비되고 정리되어 있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안수집사들과 함께 부역 봉사를 연합으로 하며 정갈스럽게 만들어지고 또한 정성이 모아진 점심식사를 대할 때마다 수고하는 봉사부원들의 땀과 노고가 생각이 난다.

밸리 봉사국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장은 김재동 집사 김정혜 권사, 총무는 이중희 집사, 의료사역국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의 아내 이은실 집사가 봉사하고 있다.

김재동 국장은 볼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생명을 힘을 다하여 봉사와 사역의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모습이 참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매주 함께 섬기는 부원들과 화목하게 부서를 이끌어가는



김재동 집사는 "말씀과 설교로 듣고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그려봅니다. 세상은 삶에서 자기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동참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되, 주님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매주 아름다운 동역과

섬김의 향기가 식사시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국에서 봉사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동참하셔서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총무로 섬기는 이중희 집사는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자세, 그리고 봉사국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봉사국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에서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국원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주안예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공태용 기자 |

■ 마하나임 성가대 (세리토스채플)

##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세리토스 마하나임 성가대가 김용기, 김영애 집사님 집에서 친목모임을 가졌습니다.

최혁 목사님과 이현욱 목사님, 이미란 전도사님, 그리고 한 달여 전부터 벨리 채플에서 이곳 세리토스 채플로 자리를 옮기셔서 봉사하시는 박선우 지휘자님을 모시고 20여명의 성가대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5시 반부터 모여 밖에서는 고기도 굽고 안에서는 식탁도 차리며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답소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시에 최목사님과 함께 성가대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는 성가대의 위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당에 성가대를 위한 자리가 없어 앞자리 구석에 임시로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을 듣는 회중들 입장에서는 노래가 제대로 들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모두들 마음에만 담고 있던 문제를 역시 전문가이신 박선우 지휘자가 정식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지휘자가 부임한 이후로 성가대의 자리도 바꾸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녹음도 하며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대원들을 비롯한 교우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내린 결론이었겠지요? 어떠한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답임 목사님께서도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가능하면 회중을 보고 찬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솜씨를 내어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닭요리, 김치, 잡채,



여러 가지 무침, 볶음, 불고기, 생선구이, 엘에이 갈비 등등 산해진미가 차려졌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아 모두 맛보려고 조금씩 담았는데도 접시에 음식이 산더미처럼 올라갔습니다.

하시엔다 산등성이,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집 뒷마당에서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먹어서 인가요? 음식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세화 대장님과 황종섭 총무님의 인도로 간단한 성가대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성가대의 회칙과 조직, 그리고 질서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원의 의무와 권리도 말씀해주셨는데 놀랍게도 다 외워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선우 지휘자께서는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도록 잘 조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임원단에서 그동안 성가대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대원들을 뽑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프라노 김청자 권사님과 반주자 김혜자 집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이신 김청자 권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봉사하시는 것 외에 때때로 성가대원들을 위한 음식 대접에도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주자이신 김혜자 집사님은 마하나임 성가대 창단 이후로 지금까지 말없이 아름답게 헌신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함께 금일봉을 전달하였는데 모두 총무님과 부총무님 개인 주머니에서 각 출하셨답니다. 하여튼 모두 감사합니다. 성가대 대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많이 수고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고 주안에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성운 기자 |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스러운 소고기 스테이크를 집에서 짧은 시간에 조리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구역 예배나 소그룹 교회 모임에 어울리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소개한다.

#### 1. 재료 (4인분)

- 1) 스테이크용 소고기 1 파운드 (1 ~ 1 1/2 인치 두께): USDA Prime 이나 USDA Choice 정도의 양질의 것으로 고기 사이에 하얀 기름 무늬가 골고루 퍼져있는(Marbling) 신선한 고기를 권한다. 고기 사이의 기름은 열량을 높이지 않으며 고기를 부드럽고, 맛을 높이며 overcooking 되는 것을 막아준다. 2) 굵은 바다 소금
- 3) 올리브 오일 4) 두꺼운 무쇠 후라이팬이나 철판 (Cast Iron Skillet) 5) 손잡이가 긴 주방용 집게

### 소고기 스테이크 Beef Steak

박창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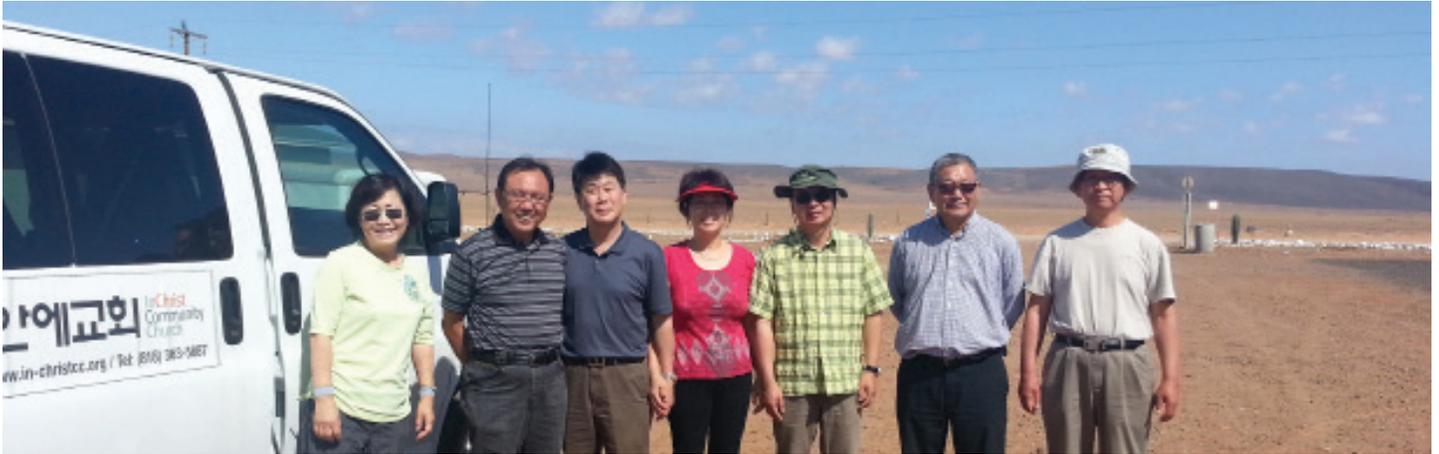
#### 2. 만드는 법

- 1) 고기는 실온(화씨 70 도)으로 녹인 후 종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 2) 굵은 소금 1 큰술에 통후추를 넉넉히 으개어 넣고 잘 섞어 놓는다.
- 3) 물기를 제거한 고기에 올리브유(2 큰술)를 골고루 넉넉히 바르고 위 (#2)의 소금과 후추 섞은 것을 뿌린 후 10분 기다린다.
- 4) 중간 센 불로 충분히 예열된 두꺼운 무쇠 후라이팬이나 철판에 #3의 고기를 놓고 팬이 달은 면이 지글 지글 골든 브라운이 되도록 바삭하게 구어 딱 한번만 뒤집는다.



- 5) 굽는시간(1인치 스테이크) a. 약간 덜 익힘(Rare): 한면에 2 분씩 양면에 4 분 정도/ b. 중간 익힘(Medium Rare): 한 면에 3 분씩 양면에 6분 정도/ c. 익힘 (Medium Well): 한 면에 4 분씩 양면에 8 분 정도 // 고기의 온도계를 이용할 경우 a. Rare : 120 도/ b. Medium Rare : 125 도/ c. Medium Well : 130 도
- 7) 취향에 맞게 구어진 스테이크는 팬에서 다른 용기로 옮겨 알루미늄 호일로 험령하게 덮은 뒤 5~10분 기다린다. 이 스테이크는 다른 양념이 없어도 맛이 훌륭하나 취향에 따라 원하는 Sauce를 곁들여도 좋다.
- 8) 위의 준비된 스테이크는 통 조각으로 혹은 작은 조각으로 자른 후 구은 감자나 삶은 야채, Garden Salad, 현미 빵과 함께 상에 올린다.

■ 멕시코 단기선교 현지답사



## 의료·미용·건축 사역, VBS 통해 어린이 전도 준비

2015년 6월 10일 김준역, 윤종화, 이방걸 장로, 이복희, 이혜령 권사, 공태용 집사 등 6명은 새벽 4시 30분에 벨리채플에서 합류 후 새벽 5시경 멕시코 바하 칼리포니아의 산하 신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익숙한 스페니쉬와 그곳 지리에 익숙하며 오랫동안 지역 선교지를 위하여 봉사하였던 김준역 벨리 선교국장과 10년 넘게 멕시코의 영혼을 위하여 선교를 해온 윤종화 장로, 이번에 의료봉사를 책임질 의료국장 이복희 권사와 그 지역 단기선교에 경험이 있는 이방걸 장로, 이혜령 권사 부부 등이 하나가 되어 이번 여름단기선교는 하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뭉쳐서 떠났다.

출출한 배를 샌디에고 못미친 작은 휴게소에서 내려 아침은 윤종화 장로가 준비해온 달걀 2개와 물로 간단히 채우고 다시 출발하였다. 멕시코 국경근처에서 마중 나온 이종식 선교사와 합류하여 멕시코 국경을 넘어 보이는 1번 해안도로를 타고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주로 미국사람들이나 돈 많은 멕시코 상류층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과 군데군데 보이는 벽돌만 앙상하게 남은 집들이 그들의 생활의 격차를 느끼게 하였다. 관광지 엔세네다를 거쳐 까말루에 오전 11시에 도착했다.

이종식 선교사가 섬기는 선교센터의 방문에 앞서 셀교회를 둘러보았으며 여름 성경학교와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위한 현지 물품 구매 장소의 상점 등을 함께 둘러보았다. 이후 거리선교에 필요한 물품지원 품목과 지역을 선별하고 이후 도착한 선교센터에서 이방걸 장로는 모든 곳이 많이 업데이트되어서 이번 여름 단기선교는 훌륭히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식당과 예배당 기술센터 그리고 클리닉으로 구성된 선교센터는 그동안 많은 교회의 후원과 기도와 하나



님의 은혜로 어느 단기선교팀이 구성하여 울지라도 그 뜨거운 마음들을 쏟아놓기에 충분한 사역들을 준비해 놓았다.

먼저 의료팀은 치과와 한방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많은 의료종사자가 함께 조인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곳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고 치료 선교도 할 예정이다. 미용팀은 그곳 주민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선물용 의류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VBS를 준비하여 그곳 SAN JACINTO 주위의 갭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구원사역을 준비하며 계획은 중고등부학생과 청년부가 여름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의 경험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아직 건물의 벽체만 올려진 건물들의 전

기, 페인트 공사 등 건축팀도 함께 사역하여 건물의 완성을 도울 예정이다. 건축이나 전기 분야에 종사하시는 성도들의 재능기부를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 주방봉사, 전도사역 등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급변 단기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교센터 성전 내부와 VBS를 진행할 장소 등을 돌아보고 돌아오는 일정에 들려본 마켓과 미국에서 먹던 Taco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Taco House(특히 기름에 구운 파)들도 여름단기선교에 앞서서 답사팀이 방문하였다.

멕시코 선교 답사팀은 다시 8시간여를 달려 6월 11일 0시 40분에 교회로 돌아와서 해산하면서 19시간여의 답사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선교지를 돌아보고 난 후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선교사에게 허락하여 그 마음을 품고 20년, 그 후 100년 앞의 선교센터를 내다보며 이곳 Baja California를 벗어나 온 멕시코를 깨우는 영적인 리더를 길러내는 신학교로 발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관학교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박 4일의 선교기간동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땀을 흘리며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면 자녀와 함께 그리고 부부가 함께 2015년 여름은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올 여름 단기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모두가 주안에 마음으로 주안에 사랑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선교지를 직접 체험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공태용 기자 |

■ 세리토스채플 주안예빛 간증

## 성경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시야를

주안예교회에 온 후 처음으로 이현욱 목사님과 의 첫 class이다. 항상 최혁 목사님 설교만 듣다 이현욱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욱 목사님께도 풍기는 같은 사랑과 감사의 냄새가 있어서 두분 목사님들한테서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경전체를 하나로 보지 못한 나에게는 더욱이 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정확한 시간과 인물들의 geographic location 또는 배경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특별히 신구약을 잇는 역사적, 지리적, 성경적 해석은 전에 알지 못하였던 성

경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어서 좋았고 하나님 의 섭리와 질서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되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묵묵히 광야를 걷은 사람들이 다. 한편 사울왕과 같이 기다리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다. 성경은 광야 이야기로 가득하다. 우리의 인생도 같은 것 같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건널까를 생각한다.



임현석 집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같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오래 기다리며 사는 것과 영광스러운 그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또한 농부가 추수할 열매를 기다리듯 우리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때늦은 후회, 복습과 성경통독으로 만회

18주에 걸쳐 주안예빛 과정을 마치면서 “후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주도 짧지 않은 기간인데 예정보다 늦게 끝나게 되면서 뭘지 모르게 매여 있는듯한 마음으로 과정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일예배 후 점심을 먹고 나른한 오후에 강의를 들으러니 앉아 있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 다. 이왕 시작했으니 끝내자는 생각과 제가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 있지 않으면 과연 뭘 하고 있겠나? 별로 그렇게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저를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였고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강의를 듣는 저도 저지만 강의를 하시는 이현욱 목사님도 참 애처롭고 안타까웠습니 다. 주일에 가장 힘드실텐데 오후 시간, 다시 강의를 한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도 좀 더 열심히 강의를 들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존재라서 그런지 양육훈련과는 달리 속제가 없으니 그냥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것으로 이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안예빛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강의하실 부분의 성경말씀을 꼭 읽어와야겠다고 다부진 결심을

하였는데 스스로 훈련하는 것에 저는 실패하였습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주일날 오후 힘든 시간에 강의를 해 주시는 목사님을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나른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을텐데, 그리고 주안예빛과 함께 성경일독을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후회인 것입니다. 미련하게도 뒷북치는 격이지만 주안예빛 과정을 끝내고 나서야 정신이 차려지는지 복습 겸 성경통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좋았던 것은 목사님께서 본문들을 펼쳐 놓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연대기적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성경을 구절구절 설명해 주신 것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틈틈이 은혜도 나누어 주시고 유머도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전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혜 집사

## 18주과정 마치도록 2차례 수술 연기도

병원에 입원한지 4일째다. 그동안 수술하느라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까 이런 저런 생각 끝에 “주안예빛” 속제가 생각이 났다.

병원에 있느라 그리고 수술하느라 마지막 그 시간을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아픈 몸으로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다.

“주안예빛” 성경공부를 시작할 무렵에 나는 이식 수술을 기다리던 때라 많이 망설였었다. 하다가 중단하기는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다가 못하면 다음에 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였는데 수술날짜가 2번이나 연기가 되면서 여기까지 수술도 무사히 하였고 성경공부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이미 아셨던 주님은 2번의 수술날짜 연기로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모두 하게 하셨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을 통해 너무나 많이 느꼈고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에 또 한 번 감사하다.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시간에 졸음을 쫓기 위해 사랑을 나누며 이현욱 목사님의 위트 있으신 농담으로 우리들을 잠에서 깨우시고 따뜻한 미소로 함께 하셨던 목사님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빨리 퇴원하여 교회로 달려가고 싶다.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인생 살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를 기도해 본다.

6월 7일  
UCLA 병원에서



김재희 집사

■ 중고등부 수련회

## 젊은 가슴에 변화와 새로운 결심 "I do"

(1면서 계속) 수련회 시작하기 며칠 전 강사가 바뀌기도 하고 그보다 2주 전 교육부 디렉터가 사직하는 등 수련회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걸 지켜보며 이번 수련회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다고 싶어 리더들은 더욱 하나로 뭉쳤고 기도에도 매진하며 철저한 준비로 완전무장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드디어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교육부 모든 리더들과 학생들의 기도는 첫 시간부터 예배당을 환한 빛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나갔다. 습관처럼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던 회개의 눈물을 넘어 두팔 벌려 우리보다 앞서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심령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신부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의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이다. 내가 쓰러지고 망가지고 환란 중에 신음했던 지난 그 언젠가도,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알 수 없이 차오르는 분노를 감당치 못하는 지금도,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 같은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eh-yeh im-mak - I was with you, I am with you, I will be with you.)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확인된 너무나도 축복받은 각자의 인생에 수련회는

시작부터 혼인잔치가 치러진 것이다.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거나 실패했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란걸 자각한 순간... 왜 이번 수련회에 이런 저런 걸림돌이 많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우린 그들을 이겼다. 내가 오늘 아침 "에그 이 OO 아.."라고 타박했던 우리 아이는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순결한 신부였다.

"오 타락한 자식들아, 돌이키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서 성읍 중 하나와 족속 중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예레미야 3장 14절)

우리의 성결함으로 얻은 신부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얻은 신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이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아이들은 무거

운 마음이 아닌 축복받은 자로서의 넘치는 자랑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싹트고 있었던 나쁜 생각과 습관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약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과 혼인서약을 하고 정말로 멋진 신랑에 걸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 새출발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들이 되었다.

아이들의 열린 마음과 변화된 얼굴 표정 하나 혹은 많은 결심을 하는 모습이 수없이 많은 밤을 설친 리더들을 춤추게 했다. 저들의 모습이 정말 며칠 밤을 설친 모습일까 내 눈이 의심될 정도로 말이다. 리더들은 이렇게 새출발하는 아이들이 진심 고맙고 예쁘고 이

루 하루였다.

아이들을 수련회에 보내고 "잘 있다 오겠지"가 아니라 함께 하는 마음으로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피곤함과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 매일 찾아 주셨던 많은 학부모들과 교회 여러 교역자분들, 그리고 초행길 운전이 아주 서투르시다 소문난 최혁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까지 찾아와 리더들과 학생들을 일일이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며 하나님 시선이 닿는 그곳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시선도 함께 함을 전해주어 아이들은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다. 30~40년을 세상에 짓어 살았던 우리가 변한다는게 100명중 1명이나 가능할까? 그러나 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은 아직 영글지 않았고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아이들에게 포고를 한다. 이 아이들은 100을 주면 90이상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화답한다. 물론 교회의 재정을 비롯한 많은 부분은 장년의 힘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 장년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우린 너무 익숙해졌고 세상과 많이 타협했으며 일정부분 변질되기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세대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수련회에서 맨 뒷자리를 차지하고 반쯤 누운듯 앉은 듯 했던 몇 아이들이 하루 이틀 지날수록 자세를 바로 잡더니 세째날부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에 집중하더니 굳어 있던 얼굴에 너무나 해맑은 미소로 변해갈 때 난 우리의 미래를 보았다.

아침햇살처럼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금빛 눈부신 미래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 이들이 결국 이 더럽혀진 세상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도 덩달아 뜨거워진 4일의 여정은 6월 24일 끝났다. 그러나 주안예교회 교육부와 여기에 속한 모든 아이들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 황금빛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실현되는 그날까지 주욱... 우리 아이들이 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변화가는 세상을 향해 각자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제 힘으로 세상 깊숙한 곳까지 행진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살롬!!!

| 채은영 기자 |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다. 또한 이 젊은 영혼들의 헌신을 온 맘으로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 역시 보이는 듯 했다.

급하게 강사로 초대받은 오윤태 목사님은 다민족교회를 이끌고 계시며 아이들을 향한 크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셨다. 이들을 남기로 초대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의 마음 속을 파고들었고 목사님 또한 근래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다며 설레면서도 큰 부담감을 안고 매번의 설교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다. 둘째날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으로 급작스럽게 우리의 주제에 맞춰서 새로 판을 짜셨고 설교를 새로 준비하면서 부터 말씀을 전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이끌려 행하셨다고 고백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준비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고 온 맘이 육토로 일궈져 씨가 뿌려지지만 기다리는 자들이 만났을 때의 총명한 영과 빛을 느낄 수 있는 하

■ 중고등부 수련회

# 뜨거운 만남 · 아름다운 헌신... 햇살같은 웃음



■ 문학과 삶

"나는 어쩌면 생겨..." 체념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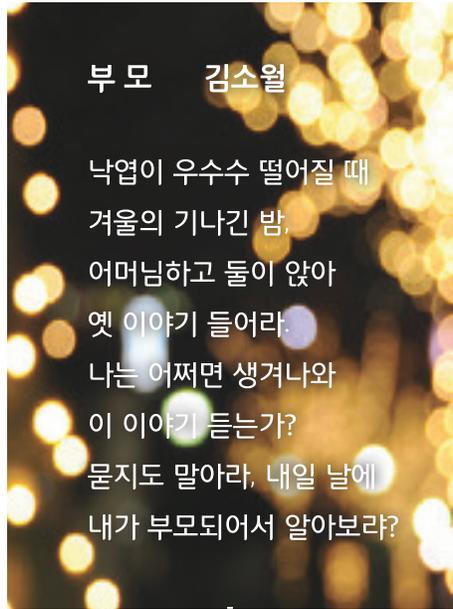
아버지날이라 선물을 보냈다는 큰아들의 이메일을 읽는다. 모처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에야 걸핏하면 눈물이 글썽이는 아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특한 말도 들었다. 문득 이 시가 생각나서 그 녀석에게 보냈다. 한국의 정서가 살갓이 젖어있는 전체의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해주니 참 고마웠다.

캠퍼스 가수 양희은이 구성지에게 부르던 노래가 소월의 시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1986년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가곡의 20%가 김소월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과연 소월은 가곡시인이라 불릴만도 하다.

1925년 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을 발행해 시단에 이체를 나타내던, 재질이 비상하던 청년시인 김정식씨는 고난의 연속이던 생을 1934년 12월 24일 평안북도 관산에서 아편 음독 자살로 끝맺음하였다. 향년 33세로 생을 접었던 소월의 아픈 울음을 옮겨본다:

나는 소월(素月)이다--나는 노래했다. 봄에는 고향 평북 정주의 야산에 흐드러진 '진달래꽃'을, 낙엽 떨어지는 겨울 밤엔 어머니와의 대화를 '부모'로 읊었다. 내 시(詩) 주머니는 말 그대로 '하수분'이었다.

조국은 아름다웠지만 시대는 엄혹(嚴酷)했다. 내 나이 두살 때 나귀에 멍을 것 실어오던 아버지는 일본인 철도노동자에게 맞아 정신을 놓고 말았다. 여덟살 때 겪은 국망(國亡)은 내 육신(肉身)이 스러질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어느 불행한 시인이 말했는가, 우울(憂鬱)은 시를 꽃피우는 자양분이라고....



부모 김소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려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되어서 알아보라?

오산중 교사였던 스승 김억(金億)의 추천으로 나는 1920년 동인지 '창조' 5호에 첫 시를 썼다. 그 후 5년간 154편을 썼다. 내 생애 가장 화려했던 시기는 1922년이었을 것이다. 그 한 해에만 '먼 후일' 등 30편을 썼던 것이다.

생(生)의 화려한 날은 짧다. 1927년 동아일보 평북 구성(龜城)지국 경영에 실패한 뒤 난 술독에 빠져 지냈다. 1934년 12월 27일 이승과 하직했을 때 조선일보는 '청년 민요시인 소월 김정식 별세'라는 기사로 내 죽음을 알렸다.

소월의 시가에 떠도는 애수(哀愁)는 잃어진 것에 대한 비애로서 극히 낭만적인 색조를 띠면서 우리의 심연 깊이에 머문다. 부모와 자식간의 한평생을 써놓은 일기장이 있다면, 그 누군들 이 짧막한 시 한편에서보다 더 우수 어린 인생의 색조를 그려낼 수 있었을까? 한평생을 알뜰살뜰 장중의 보화처럼 키워주시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효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떠나버리셨다. 그런 사랑따위는 너무도 당연해 나중에

도 없은 채 오로지 나만을 찾아 헤메던 반항의 세대 우리들은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 가는 늙은 부모들이 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낯선 미국땅에서 자라면서 문화의 차이로 인한 물 이해가 한꺼풀 더 두껍던 우리의 자식들도 이제 어느덧 부모가 되어있구나!!!

이렇게 생각의 자락을 따라가면 이 시는 우리도 소월이 되어 읊어내는 인생이야기라 해도 좋겠다.

아! 나는 어쩌다 생겨나와 지금 어머니의 옛 이야기를 듣는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부모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게 될 것이 아닌가... 어쩌면 체념쉬인 운명론자의 서글픔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애수 어린 인생의 흐름을 극복할 분명한 반전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렘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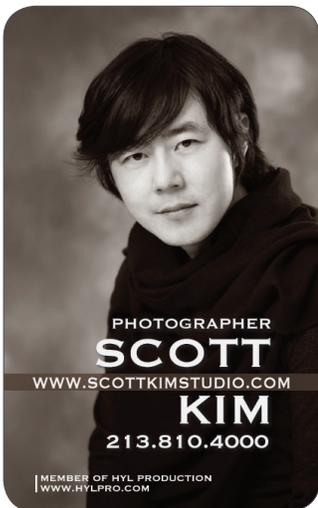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너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알게 된 후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니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의 수동적 체념에서 걸어 나올 수밖에... 그 대신 "나는 결코 사람에게 의해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할 때부터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조용히 외쳐본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고 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서미숙 기자

교/우/비/즈/니/스



The Korean American Counseling Center  
**한인 기독교 상담소**

**심리상담**

- 개인상담
- 부부/가족 상담
- 아동/청소년 상담
- 성립자들을 위한 특강
- 목회자/선교사 회복 그룹 상담

**무료 마음 건강 예방 교육**

매주 연령별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교육 및 케기나를 제공함. LA County에 거주하는 교포, 단체, 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강 세미나**  
스트레스와 뇌신경계/ 타인관계/ 중독/ 부모교육/ 우울과 계절/ 교회에서 영혼 건강 지키기
- **소그룹 워크샵**  
자녀양육/ 스트레스 관리/ 대영관계/ 이민자 다문화 갈등해소/ 농활상담/ 분노조절/ 버려진 정신건강 회복/ 정신건강 연속성/ 지지그룹
- **홍보교육**  
성직장애/ 수경장애/ 알코올-중독/ 우울과 불안/ 정신분열증/ 자살예방/ 가정폭력

7, 8월 커뮤니티를 위한 소그룹 워크샵 - "Parenting 101" 7/16-8/6, 매주 목요일(10:30-12:30pm). 장소: 윌트먼대학 >  
Tel: 213.729.6929 www.kaccs.net, 500 Shatto Pl #519, Los Angeles, CA 90020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 무더위 속 여름성경학교 200여 어린이 배곡

주안예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곳 필리핀은 제일 더운 여름 4, 5월을 보내고 이제 6월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4, 5월 여름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G2FM과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인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여름성경학교(V.B.S)와 중,고등부 연합 찬양캠프 그리고 학교와 교회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수련회와 운영 중인 G2 학교 교사 계속교육까지 정신없이 구슬땀을 흘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V.B.S)엔 200여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여 예배실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아이들은 말씀과 찬양과 크레프트 등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너무 더워서 급하게 선풍기 12대를 사서 예배실과 성경공부 룸에 달았는데 아이들은 땀으로 목욕을 하는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1,000여명이 모인 필리핀 중,고 연합 찬양캠프에 참석하여 다른 교회 친구들과 사귀고 은혜를 나누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G2FM 교사들이 함께하는 수련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교사로 쓰임 받기 위해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저희 G2FM의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후원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G2FM 김길현 선교사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Sang B. Kwon 권 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May Queen

Helen  
원장

Cell: 562.315.3090

BUS. HOURS:  
9:00am - 7:00pm  
전화예약 바랍니다.

Tel: 714.228.9001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정원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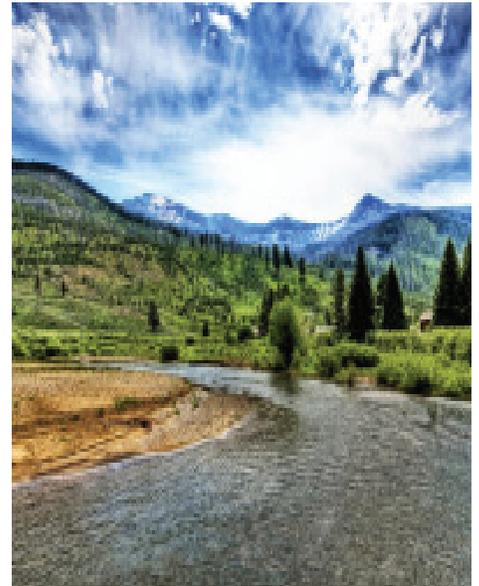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543장 Higher Ground

이 찬송은 1935년에 편찬된 <신편 찬송가> 333장에 채택되면서 그야말로 온 국민의 애창곡이 된 찬송입니다. 도입부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 갑니다...”로 찬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숙연해지면서 뜨겁고 간절하게 부르게 됩니다. 소망의 자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쉽없이 나아가 고픈 절절한 간구가 품어져 나옵니다. 이어지는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 합니다” 부분에선 우리 성도의 생애가 기도하는 삶,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일의 소망을 꿈꾸는 삶이라고 노래 합니다. 후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곳에 서게 하소서 그 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옵니다”에서는 시편 18:16 “그가 내 발을 사슴 발 같게 하여 나를 높은 곳에서도 서게 하시며...”라는 다윗의 증언처럼 빛과 사랑이 넘치는 높은 그 곳에서도 흔들림없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호소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필자에게도 가장 애창하는 찬송곡 중의 하나입니다. 작사자는 존슨 오트만 2세 (Johnson Oatman, jr., 1856-1922) 목사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출생한 그는 19살에 예수를 영접한 후 험버트 아카데미(Herbert's Academy)와 뉴저지대학을 마치고 감독과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가 되어 각지를 다니며 전도생활을 하다 사업을 도와 달라는

부친의 요청을 받고 고향에 다시 돌아와 사업을 도우면서 지역교회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자 사업을 정리한 다음에는 뉴저지 마운틴 홀리(Mountain Holly)로 가서 보험회사를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감독 하에 있는 고등학교에 감리교 선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며 신앙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바쁜 사업관계로 그의 목회활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36세 때인 1892년부터 본격적인 복음 송 작사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1922년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약 5000편의 찬송시를 써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매주 4~5편의 글을 지은 셈입니다. 한편 작곡자 찰스 허친슨 가브리엘(Charles Hutchinson Gabriel 1856-1932)도 그 시대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34살 때부터 샌프란시스코의 그레이스감리교회(Grace Methodist Episcopal Church)에서 활동하다 시카고로 옮겼는데 작곡활동을 활발히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1910년대 부터 가장 대중적으로 영향력있는 성가곡들을 지었던 그는 1932년 생을 마칠 때까지 무려 8,000여편을 작곡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은 가곡 ‘가고파’로 유명한 시조시인 노산(鷺山) 이은상(1903-1982)입니다. 그의 번역 원문은 이렇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



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 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곳에 서게 하소서 그 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이 원본은 ‘신편 찬송가1935’ 333장에 실려 있습니다.



서세건 기자

### “주안에” 2015년 7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용, 김경일, 김헬렌, 라형철,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오철호,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조이 메기, 채은영, 최민애, Annie Yun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은영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